

이슈브리프 870호
(2026. 7.21)

2026 나토 정상회의와 유럽 안보: ‘앙카라 선언’과 현실의 세 가지 간극

제870호

조은정 ejrcho@inss.re.kr



국문초록

나토 정상회의(2026.7.7.-8)는 표면적으로는 북대서양조약 5조의 집단방위 공약을 재확인하고, 러시아를 장기 위협으로 규정했으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700억 유로 지원과 500억 달러 이상의 신규 조달, 이란 문제 등을 압축적으로 다룬 회의였다. 그러나 정상회의 전후의 유럽 안보 현실은 선언문보다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본 이슈브리프는 이 간극을 규범, 수단, 지리의 세 층위로 구분하여 분석한다. 첫째, 규범의 층위에서는 핀란드와 리투아니아의 핵무기 반입·배치 관련 법제 변화가 보여주듯, 유럽 핵억제가 전략개념의 문제에서 영토와 법제의 문제로 전환되고 있다. 둘째, 수단의 층위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러시아 본토의 에너지 인프라와 흑해 해상물류로 확장되면서, 억제 중심이 병력과 플랫폼에서 센서·데이터·정밀타격·AI·우주사이버 자산·무인체계로 옮겨가고 있다. 셋째, 지리의 층위에서는 흑해와 북극이 각각 다른 방식으로 차기 안보공간으로 부상하고 있다. 흑해는 전략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동맹 내부 합의가 아직 문서화되지 못한 공간이며, 북극은 선언문 밖에서 이미 지휘구조와 주둔태세가 제도화되고 있는 북부 전선이다. 앙카라 정상회의의 의미는 나토가 우크라이나를 계속 지원한다는 데 그치지 않는다. 더 본질적으로는 유럽안보의 규범, 수단, 지리가 동시에 재편되고 있으며, 공식 선언문은 그 변화를 뒤따라가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키워드: 앙카라 선언, 유럽 핵억제, 우크라이나 전쟁, 흑해·북극 안보, AI·우주 기반 억제, 전쟁 인프라

앙카라 선언: 현실과 문서의 간극

2026 나토 정상회의(7.7-8)에서 채택된 ‘앙카라 선언’은 지난해 헤이그 정상회의와 마찬가지로, 현재 나토 내부에서 논의가 진행 중인 의제들을 충분히 담지 못했다. 올해는 북대서양 5조의 집단방위 원칙을 재확인하고, 러시아를 장기 위협으로 규정하며, 유럽 동맹국과 캐나다가 향후에도 신규 조달과 우크라이나 지원에 큰 몫을 담당하는 것을 확인하고, 이란 문제도 압축적으로 기술하는 데 그쳤다.¹⁾ 차기 정상회의 개최에 대한 언급도 없었다. 그러나 절제된 앙카라 선언과 달리 회의장은 올해도 안팎으로 어수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스페인의 이란전 협조 부족을 비판하며 교역 중단 가능성을 거론했고, 그린란드 통제 필요성을 다시 제기했으며, 이란과의 양해각서가 사실상 종료되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²⁾

주요 싱크탱크들도 이 같은 ‘문서와 현실의 간극’에 집중하였다. 카네기(Carnegie)는 앙카라에서 유럽 동맹국들이 미국 관여 축소 이후의 동맹 운용을 실질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진단했고,³⁾ FP(Foreign Policy)는 미국의 관여라는 핵심 문제의 결정이 유예되어 나토의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⁴⁾ 진영에 따른 시각 차이도 확인되었다.⁵⁾ 러시아국제문제 위원회(RIAC)에 게재된 한 분석은 유럽이 튀르키예의 지정학적 이점과

1)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2026, July 8). ‘The Ankara Summit Declaration.’ <https://www.nato.int/en/about-us/official-texts-and-resources/official-texts/2026/07/08/the-ankara-summit-declaration>

2) F. Kelliher, (2026, July 8). ‘Five key takeaways from the NATO summit in Ankara.’ Al Jazeera. <https://www.aljazeera.com/news/2026/7/8/five-key-takeaways-from-the-nato-summit-in-ankara>

3) S. Besch, A. Coşkun, N. Reynolds and S. Wertheim, (2026, July 1). ‘Ahead of the Ankara summit, NATO’s mood has changed.’ *Emissary*,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https://carnegieendowment.org/emissary/2026/07/nato-summit-ankara-united-states-europe-turkey-ukraine-alliance>

4) S. M. Walt, (2026, July 13). ‘NATO is Still a Sick Puppy’, *Foreign Policy*. <https://foreignpolicy.com/2026/07/13/nato-trump-europe-summit-ankara-alliance-russia-defense-geopolitics/>

5) 러시아와 중국의 반응은 사실관계 검증보다는, 나토 정상회의에 대한 비서방권의 해석 틀을 보여 준다.

군사적 역량을 필요로 하면서도 의사결정에서 배제해 온 “서방 안보구조 내부의 이중성”을 회의의 구조적 배경으로 지목했다.⁶⁾ 중국 관영매체는 나토의 중국 위협론을 아시아·태평양 개입 확대의 명분으로 규정했으나, 선언문의 중국 관련 표현은 전년 대비 완화되었다.⁷⁾

본고는 이번 앙카라 선언 전후 변화 가운데 가장 구체적이고 되돌리기 어려운 유럽 핵억제의 재정치화, 우크라이나 전쟁과 유럽에서 억제의 성격과 수단의 변화, 포스트 우크라이나로서 흑해와 북극 의제 순서로 규범과 수단, 지리 변화의 세 층위로 구분하여 분석한다. 세 층위는 공통적으로 공식 문서가 담은 것과 실제로 진행 중인 것 사이의 갭을 보여주며, 이 갭이 앙카라 회의를 읽는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핵억제: 영토와 법제의 문제로 회귀

앙카라 선언은 핵억제를 원론적 수준에서 다룬다. 나토의 억제·방위는 핵, 재래식 전력, 미사일 방어에 적절한 조합에 기반하며, 우주·사이버 자산이 이를 보완한다. 그러나 정상회의를 전후한 유럽의 변화는 이보다 역동적이다.

핀란드는 2026년 3월 핵무기 반입·보유·제조를 금지해 온 기존 법제의 개정을 추진한다고 발표했고, 지난 6월 17일 의회 절차를 통해 관련 금지 조항 완화를 진행했다.⁸⁾ 리투아니아 나우세다 대통령도 7월 2일 주요 정당

6) M. S. Özel Özcan, (2026, June 9). ‘The Ankara NATO summit: Turkey’s capacity to manage the duality within the Western security architecture.’ Russian International Affairs Council. <https://russiancouncil.ru/en/blogs/merve-suna-ozel-ozcan/the-ankara-nato-summit-turkeys-capacity-to-manage-the-duality-within-t/>

7) S. Shen and Y. Li, (2026, July 8). ‘NATO chief’s hyping of China’s routine missile test aims to justify growing Asia-Pacific meddling and fuel bloc confrontation: Experts.’ *Global Times*. <https://www.globaltimes.cn/page/202607/1365402.shtml>

8) S. Vakulina, (2026, July 3). ‘Lithuania moves to lift nuclear weapons ban, following Finland’s lead’, *Euronews*. <https://www.euronews.com/my-europe/2026/07/03/lithuania-moves-to-lift-nuclear-weapons-ban-following-finlands-lead>

지도부가 헌법 제137조 (대량살상무기와 외국군 기지의 배치를 금지해 온 1992년 조항)의 삭제에 합의했다고 발표했고, 이튿날 의원 50여 명이 개헌안을 발의했다.⁹⁾ 이 같은 핀란드와 리투아니아의 결정 배경에는 칼리닌그라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이스칸데르 배치, 2023년 이후 벨라루스에 배치된 러시아 전술핵, 그리고 미국이 유럽 내 신규 핵 투발 수단 배치를 협의 중이라는 Financial Times 보도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¹⁰⁾

핀란드·리투아니아가 핵무기 배치 계획이 없다고 밝혔듯이, 우리는 핵무장이 아니라 이들을 움직인 원인, 위협 인식 수준의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 그동안 유럽의 핵 논의는 프랑스 핵전력의 유럽화, 미국 전술핵의 지속성, 독일의 핵공유 참여와 같은 전략개념 수준에서 진행되었어도, 핀란드와 리투아니아 처럼 이 논의를 구체적 실행의 차원으로 발전시킨 적은 없었다. 이제 핵 억제제는 유럽에서 전략 수준의 논의가 아니라 어떤 무기가 어느 영토에 반입될 수 있는가, 어떤 법이 이를 허용하는가, 국내정치가 이를 수용할 수 있는가의 구체적인 작전적·법제적 문제가 되었다.

변화의 방향성은 일관된다. 러시아에 인접한 국가일수록 미국 확장억제의 불확실성을 직접적으로 체감하며, 나토 핵 억제가 실제로 작동할 수 있는 법적·물리적 조건을 사전에 확보하고자 한다. 이는 자체 핵무장 노력과는 구분되지만, 핵무기 배치를 원천적으로 금지해 온 규범의 해제는 점에서 핵억제의 정치적 문턱을 낮춘다.¹¹⁾ 나우세다 대통령은 핵무기 배치 금지 조항의 유지로 리투아니아가 “동맹 내 약한 고리 또는 회색지대”가 될 수 있다고 우려를 감추지 않았다.¹²⁾

9) Ibid.

10) S. Meredith, (2026, July 2). ‘Russia’s neighbor Lithuania scraps constitutional ban on nuclear weapons. Here’s why.’ CNBC. <https://www.cnbc.com/2026/07/02/russia-ukraine-nato-lithuania-nuclear-weapons.html>

11) 리투아니아 주요 정당들이 헌법상 핵무기 및 외국군 기지 금지 조항을 해제하는 데 합의했으나, 아직 협의 및 개헌 추진 단계로 향후 두 차례 의회 표결과 2/3 찬성이 필요하다.

12) S. Vakulina (2026, July 3).

결국, 앙카라 선언이 핵 문제를 원론적인 문구로 축소하는 동안, 러시아 위협에 직면한 접경국들은 자국의 법제와 영토 주권 하에서 핵 억제제의 조건을 재설계하고 있다. 유럽 핵억제의 재정치화는 핵무장 선언이 아니라 법적 금지와 정치적 금기를 단계적으로 제거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향후 나토 핵공유와 동유럽 방위태세 논의를 더 구체적이고 민감한 방향으로 진전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즉, 법제는 핵억제의 조건을 바꾸고, 우크라이나 전쟁은 억제의 수단 자체를 바꾸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억제 개념의 재구성

우크라이나 전쟁은 나토 정상회의를 앞두고 새로운 국면에 진입했다. 정상회의 개막 전날인 7월 6일, 우크라이나 드론은 국경에서 약 2,500km 떨어진 시베리아 옴스크(Omsk · Омск)의 러시아 최대 정유시설을 타격했다.¹³⁾ 개전 이래 최장거리급 타격으로, 러시아 11대 휘발유 생산시설 가운데 마지막까지 피격되지 않았던 곳이다.¹⁴⁾ 같은 시기 야로슬라블(Yaroslavl · Ярославль) 정유시설, 발트해(Baltic Sea) 수출항, 아조우해 (Sea of Azov · Азовське море) 유조선이 연쇄 타격되면서 크림반도에서는 연료 판매가 전면 중단되었고, 러시아 다수 지역에서는 휘발유 배급제가 시행되고 있다.¹⁵⁾ 이제 승패는 전선이 아니라 상대의 전쟁 지속능력에서 결정된다. 동맹의 대응도 이 국면 전환을 따라갔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의

13) Reuters. (2026, July 6). 'Ukrainian drones hit Russia's largest refinery, in one of deepest strikes yet.' <https://www.usnews.com/news/world/articles/2026-07-06/ukrainian-drones-hit-russias-largest-refinery-in-one-of-deepest-strikes-yet>

14) T. Myronyshena, (2026, July 6). 'Russia's largest oil refinery in flames as Ukraine strikes Omsk, 2,500 km away from border.' *The Kyiv Independent*. <https://kyivindependent.com/russias-largest-oil-refinery-in-flames-as-ukraine-strikes-oms-2-500-km-away-from-border/>

15) 아조우 해는 러시아어 아조프 해로 더 널리 알려졌으나, 2022년 3월 발표한 국립국어원의 우크라이나어 지명 한글 표기 지침에 따라 아조우해라 쓰고 우크라이나어를 병기; I. Novikov, (2026, July 9). 'Ukrainian drones batter Russian oil facilities and set more oil tankers ablaze.' AP. <https://apnews.com/article/6cb5602f1cf309533ed0cf5c734e19d8>

기간 우크라이나에 패트리엇 요격미사일 생산 라이선스를 부여할 의사를 밝혔으나, 구체적인 조건과 일정은 아직 불확실하다.¹⁶⁾ 패트리엇은 러시아 탄도미사일 요격이 가능한 소수의 체계 중 하나로, 요격탄 부족은 우크라이나의 핵심 취약점으로 지적되어 왔다.¹⁷⁾ 프랑스도 뒤따랐다. 미국이 패트리엇 생산 지원 가능성을 제시하는데 그친데 반해, 프랑스는 정상회의 직후인 7월 13일 파리 ‘의지의 연합(Coalition of the Willing)’ 회의에서 마크롱 대통령은 SCALP 순항미사일, AASM 유도폭탄, Aster-30 요격미사일의 우크라이나 내 라이선스 생산 허용을 발표했다.¹⁸⁾ 지금까지 완제품을 이전하던 서방의 지원이 생산능력의 이전 혹은 현지화 논의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이는 서방이 우크라이나를 장기전 수행이 가능한 군사·산업 플랫폼으로 역할을 재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재건 논의의 성격도 이에 따라 변하고 있다. 세계은행 등이 공동 발표한 ‘제5차 우크라이나 피해 및 재건 필요액 평가 (RDNA5: The 5th Rapid Damage and Needs Assessment)’는 향후 10년 복구·재건 소요를 우크라이나 2025년 명목 GDP의 약 3배인 5,880억 달러로 추산했다.¹⁹⁾ 그러나, 러시아가 에너지·민간 인프라를 공격하고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후방을 타격하는 상황에서 전력망 복구는 방공·지휘통제 기반의 복원이고, 항만 유지는 군수 이동 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최우선 과제이다. 장기전 상황에서 재건은 더 이상 전후 경제 의제만으로 분리되지 않는다. 전력망, 항만, 철도, 통신망의

16) G. Slattery and H. Pamuk, ‘Trump says Ukraine to be allowed to make Patriot missile interceptors.’ *Reuters*.

<https://www.reuters.com/world/europe/trump-says-both-sides-ukraine-war-want-settlement-2026-07-08/>

17) E. Holland, A. Stein, R. Beck, H. Aron and J. Romaniuk. (2026, July 9). ‘FPRI experts react: NATO summit in Ankara.’ *Foreign Policy Research Institute*.
<https://www.fpri.org/article/2026/07/fpri-expert-react-nato-summit-in-ankara/>

18) J. Barnes, (2026, July 14). ‘Ukraine given Storm Shadow missile blueprints.’ *The Telegraph*
<https://www.telegraph.co.uk/world-news/2026/07/14/zelensky-storm-shadow-missile-blueprints-france-ukraine/>

19) World Bank. (2026, February 23). ‘Updated Ukraine recovery and reconstruction needs assessment released’ [Press release].
<https://www.worldbank.org/en/news/press-release/2026/02/23/updated-ukraine-recovery-and-reconstruction-needs-assessment-released>

복구는 민생 회복인 동시에 방공, 지휘통제, 군수 이동의 기반을 회복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앙카라 선언의 전략적 핵심은 이 같은 변화를 억제 개념의 언어로 수용했다는 데 있다. 선언은 심층 정밀타격, 통합방공·미사일방어, 무인체계, 우주·사이버 자산, 상호운용 가능한 대서양 전투 클라우드, 첨단 AI 모델을 억제·방위태세의 핵심 요소로 명시했다.²⁰⁾ 억제의 중심이 병력과 플랫폼에서 센서, 데이터, 알고리즘, 장거리 타격, 분산형 네트워크로 이동했음을 공식 문서로 확인한 것이다. 투자 규모가 이를 뒷받침한다. 500억 달러 이상의 신규 조달, 향후 5년간 무인체계에 400억 달러를 투입하는 Drone Edge 구상, 산업 접점을 단일화하는 Front Door for Industry와 생산시설 네트워크 NATO Engine, 금융기관들의 2,170억 달러 규모 투자 약정이 발표되었다.²¹⁾ 흥미로운 점은 AI, 무인체계, 전투 클라우드가 강조되는 회의에서 나토 동부 방면으로 연결되는 파이프라인 신설을 포함한 270억 유로 규모의 연료 인프라 현대화가 포함되었다는 사실이다. 이는 나토가 미래전을 순수한 첨단기술전이 아니라, 데이터·정밀타격·에너지·병참이 결합된 장기전 수행체계로 이해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 같은 전쟁의 장기화 전환은 호르무즈에서도 확인된다. 4월 휴전과 6월 17일의 잠정 양해각서에도 불구하고 7월 7일 미국-이란 간 전투가 재개되었고, 미 중부사령부는 7월 11~12일 야간 이란의 미사일·드론 기지, 해군 자산, 탄약고, 통신망, 해안감시시설 등 약 140개 표적을 타격했다.²²⁾ 호르무즈

20)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2026, July 8). 'The Ankara Summit Declaration.'

21)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2026, July 8). 'Secretary General on the Ankara summit: NATO delivers [News release].'
<https://nato.int/en/news-and-events/articles/news/2026/07/08/secretary-general-on-the-ankara-summit-nato-delivers>

22) J. Gambrell, W. Weissert and AP (2026, July 12). 'US military hits 140 Iranian targets in latest round of strikes while Tehran attacks Gulf neighbors.' *Fortune*.
<https://fortune.com/2026/07/12/us-military-140-iranian-targets-latest-strikes-tehran-persian-gulf-neighbors-hormuz/>

해협의 석유·가스 탱커 통항량은 5월 25일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고, 브렌트유는 한 달만에 배럴당 85달러로 급등했다.²³⁾ 우크라이나와 호르무즈는 상이한 전장이지만 구조는 동일하다. 위성이 표적을 식별하고, AI가 데이터를 선별하며, 무인체계가 타격과 감시를 수행하고, 방공망은 드론 군집·순항 미사일·전자전·사이버 교란을 통합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결국, 앙카라 정상회의가 제기하는 문제는 단순히 방위비 5% 목표 달성 여부가 아니라, 그 지출로 과연 나토가 지원하는 전쟁 수행체계가 어떻게 전환되고 있는가이다.

7월 19일 러시아의 키아우 및 주요 도시 공격은 우크라이나 방공망의 취약성을 다시 드러냈고, 같은 날 흑해 노보로시스크 인근 CPC 터미널의 유조선 공격은 전쟁이 러시아 본토 에너지 인프라와 흑해 해상물류로 동시에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핵심이 더 이상 전선의 이동만이 아니라, 방공·정유·항만·유조선·철도·전력망을 둘러싼 전쟁 지속능력의 경쟁으로 이동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억제 수단의 변화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 수단이 투사될 지리적 공간 역시 우크라이나 전선 밖으로 확장되고 있다.

문서화되지 못한 전장의 확장: 흑해와 북극

억제 수단의 재구성이 선언문에 명시된 변화라면, 전장의 지리적 확장은 선언문이 담지 못한 변화다. 흑해와 북극은 모두 앙카라 선언의 주변부에 머물렀지만, 그 성격이 다르다. 흑해는 전략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동맹 내부 합의가 문서화 수준에 이르지 못한 공백이고, 북극은 선언문에 이르지 않았음에도 이미 지휘구조와 주둔태세가 제도화되고 있는 공간이다.

23) A. Bao, (2026, July 14). 'U.S. targets Iranian military assets in another round of strikes as Tehran hits Gulf states.' *CNBC*.
<https://www.cnbc.com/2026/07/14/us-iran-hormuz-strikes-oil-toll.html>

흑해의 부재가 먼저 눈에 띈다. 선언문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란, 호르무즈를 언급하면서도 흑해를 직접 명명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번 정상회의 개최국인 튀르키예의 지정학적 위치야말로 흑해 안보와 직결된다. 튀르키예는 흑해와 지중해를 잇는 일명 ‘튀르키예 해협’—보스포루스 해협(Bosphorus Strait)과 다르다넬스 해협(Dardanelles Strait)—을 통제하며, 흑해는 러시아 해군, 우크라이나 수출항, 나토의 동남부 전선인 루마니아·불가리아, 그리고 러시아의 압박에 노출된 몰도바와 조지아의 취약성이 중첩되는 공간이다. 앞서 확인한 중심 타격전의 남부 축(크림반도 에너지를 초래한 아조프해 유조선 타격)도 이곳에서 진행된다.

유럽외교협회(ECFR)은 흑해 협력이 EU-튀르키예 관계 회복의 매개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고,²⁴⁾ 영국 왕립합동군사연구소(RUSI)는 러시아 흑해함대가 상당한 손실에도 불구하고 순항미사일 투사력과 해상 차단 능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으며,²⁵⁾ 영국 왕립국제문제연구소(Chatham House)는 유럽이 러시아의 흑해 지배 의지를 장기간 과소평가해 왔다고 분석했다.²⁶⁾ 유럽 기관들과 마찬가지로 미국 싱크탱크들도 공통적으로 흑해 안보에서 튀르키예를 중요한 변수로 보았다. 아틀란틱 카운슬(Atlantic Council)도 이번 나토 정상 회의에서 위상이 가장 뚜렷하게 강화된 회원국은 튀르키예라고 평가했다.²⁷⁾ 카네기는 EU 중심 안보 구조에서의 주변화 우려가 앙카라의 행동을 규정

24) M. Aydin and A. Aydintasbas (2025, March 18). ‘Bridging the Bosphorus: How Europe and Turkey can turn tiffs into tactics in the Black Sea.’ *European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https://ecfr.eu/publication/bridging-the-bosphorus-how-europe-and-turkey-can-turn-tiffs-into-tactics-in-the-black-sea/>

25) E. Black and S. Kaushal (2025, April 14). ‘Black Sea significance to European security.’ *Royal United Services Institute*. <https://www.rusi.org/explore-our-research/publications/commentary/black-sea-significance-european-security>

26) N. Sabanadze and G. Dalay, (2025, July 28). ‘Understanding Russia’s Black Sea strategy.’ *Chatham House*. <https://www.chathamhouse.org/2025/07/understanding-russias-black-sea-strategy>

27) R. Gasco and A. Pavia, (2026, July 14). ‘Dispatch from Ankara: Turkey is establishing its own role in NATO 3.0.’ *Atlantic Council*. <https://www.atlanticcouncil.org/dispatches/dispatch-from-ankara-turkey-is-establishing-its-own-role-in-nato-3-0>

한다고 지적했다.²⁸⁾ 튀르키예는 나토의 흑해 접근에 필수적이며, 그 필수성을 기반으로 전략적 자율성을 유지한다. 흑해가 선언문에 명명되지 않은 것은 전략적 비중이 낮아서가 아니라, 튀르키예의 균형 외교와 몬트뢰 협약 체제가 결부된 이 공간에 대한 합의가 아직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흑해 의제가 논의도 정책화도 미진한 데 반해, 북극은 논의 이전에 정책화가 먼저 되는 양상을 보인다. 나토는 2025년 10월 노르웨이 보되(Bodø)에 세 번째 ‘통합항공작전본부(CAOC)’를 개설했고, 2026년 2월 노퍽 합동 군사령부(JFC Norfolk)가 주도하는 다영역 활동 아틱 센트리(Arctic Sentry)를 출범시켰으며, 6월 핀란드에 ‘전방주둔군(FLF)’을 창설했다.²⁹⁾ 핀란드·스웨덴의 나토 가입 이후 북유럽, 발트, 북극은 사실상 하나의 작전공간으로 연결되었고, 8개 북극권 국가 중 7개가 나토 동맹국이다.³⁰⁾ 앙키라 회의는 여기에 유럽 주도라는 성격을 추가했다. 스페인 대표적 일간지 El País 보도에 따르면,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북대서양·발트해·북극권에서 영국이 주도하고 미국은 참여하지 않는 12개국 해상 임무가 미국의 유럽 주둔 축소 검토와 그린란드 관련 압박을 계기로 서둘러 진행되는 중이다.³¹⁾ 덴마크는 그린란드 방위를 포함해 1년간 140억 달러 규모의 추가 투자를 단행했다.³²⁾

28) S. Besch, A. Coşkun, N. Reynolds and S. Wertheim, (2026, July 1).

29)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2026, June 18). ‘Arctic security.’ <https://www.nato.int/en/what-we-do/deterrence-and-defence/arctic-security>

30) Ibid.

31) M. R. Sahuquillo (2026, July 8). ‘NATO’s European allies move to fill the US gap with North Atlantic and Arctic missions.’ <https://english.elpais.com/international/2026-07-08/natos-european-allies-move-to-fill-the-us-gap-with-north-atlantic-and-arctic-missions.html>

32) J. C. Moyer, (2026, July 6). ‘NATO’s new Arctic presence shows that European allies are stepping up.’ *Dispatches*, Atlantic Council. <https://www.atlanticcouncil.org/dispatches/natos-new-arctic-presence-shows-that-european-allies-are-stepping-up/>

동시에 북극은 동맹 내부 긴장이 표면화되는 공간으로 부각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의 기간 그린란드 통제 주장을 반복했고, 덴마크 총리는 자국 영토 방어 의지로 대응했으며, EU는 영토보전 원칙을 재확인했다. 미국이 그린란드의 전략적 가치를 강조할수록 유럽은 미국의 참여 없이 북극을 방어할 수단을 준비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며, 12개국 해상 임무 구상은 이 동학의 산물이다. 아틀란틱 카운슬은 이런 현 국면을 “더 약해진 나토 안의 더 강해진 유럽”으로 요약했다.³³⁾

흑해와 북극을 함께 보면 지리적 확장의 구조가 드러난다. 러시아의 압박 수단은 대규모 지상 침공에 국한되지 않으며, 항만 봉쇄, 해상보험 위협, 에너지 시설 공격, 사이버 공격, 드론전이 결합되는 하이브리드 형태를 취한다. 흑해는 이러한 압박이 가장 용이하게 결합되는 남부 축이고, 북극은 항로 개방이 통상로와 군사적 접근로를 동시에 여는 북부 축이다. 두 공간 모두에서 러시아의 행동반경 확대와 나토의 대응 체계 구축이 병행되고 있다. 차이는 문서화의 단계뿐이다.

앙카라 선언이 두 공간을 담지 못한 것은 확장이 진행되지 않아서가 아니라, 확장의 속도를 동맹 내부적으로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본 이슈브리프가 제시한 세 층위인 규범, 수단, 지리적 변화에 공통된 결론이며, 앙카라 이후 유럽 안보를 읽는 기준은 선언문에 있지 않다. 오히려 선언문과 현실 사이의 괴리에서 찾을 수 있다.

결론

앙카라 정상회의는 나토가 모든 변화를 명시적으로 선언한 회의가 아니라,

33) Atlantic Council experts. (2026, July 9). ‘Eleven takeaways from the NATO Summit in Ankara.’ *Dispatches*, Atlantic Council.
<https://www.atlanticcouncil.org/dispatches/eleven-takeaways-from-the-nato-summit-in-ankara/>

변화의 속도를 선언문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 회의였다. 핵억제는 법제와 영토의 문제로 내려왔고, 우크라이나 전쟁은 중심 타격과 인프라 마비전으로 확장되었으며, 흑해와 북극은 공식 선언 없이도 다음 안보공간으로 재편되고 있다. 따라서 앙카라 이후 유럽 안보를 읽는 기준은 선언문 자체가 아니라, 선언문에 담긴 것과 담기지 못한 것 사이의 거리에 있다. 한국은 북극의 전장화에 주목하고 동해-베링해 연결 공간의 전략적 비중을 높이며, 한국의 북극 접근을 해양수산·환경 협력 중심에서 안보·우주 자산을 포함한 포괄적 국가 전략으로 전환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

//끝//

본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공식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